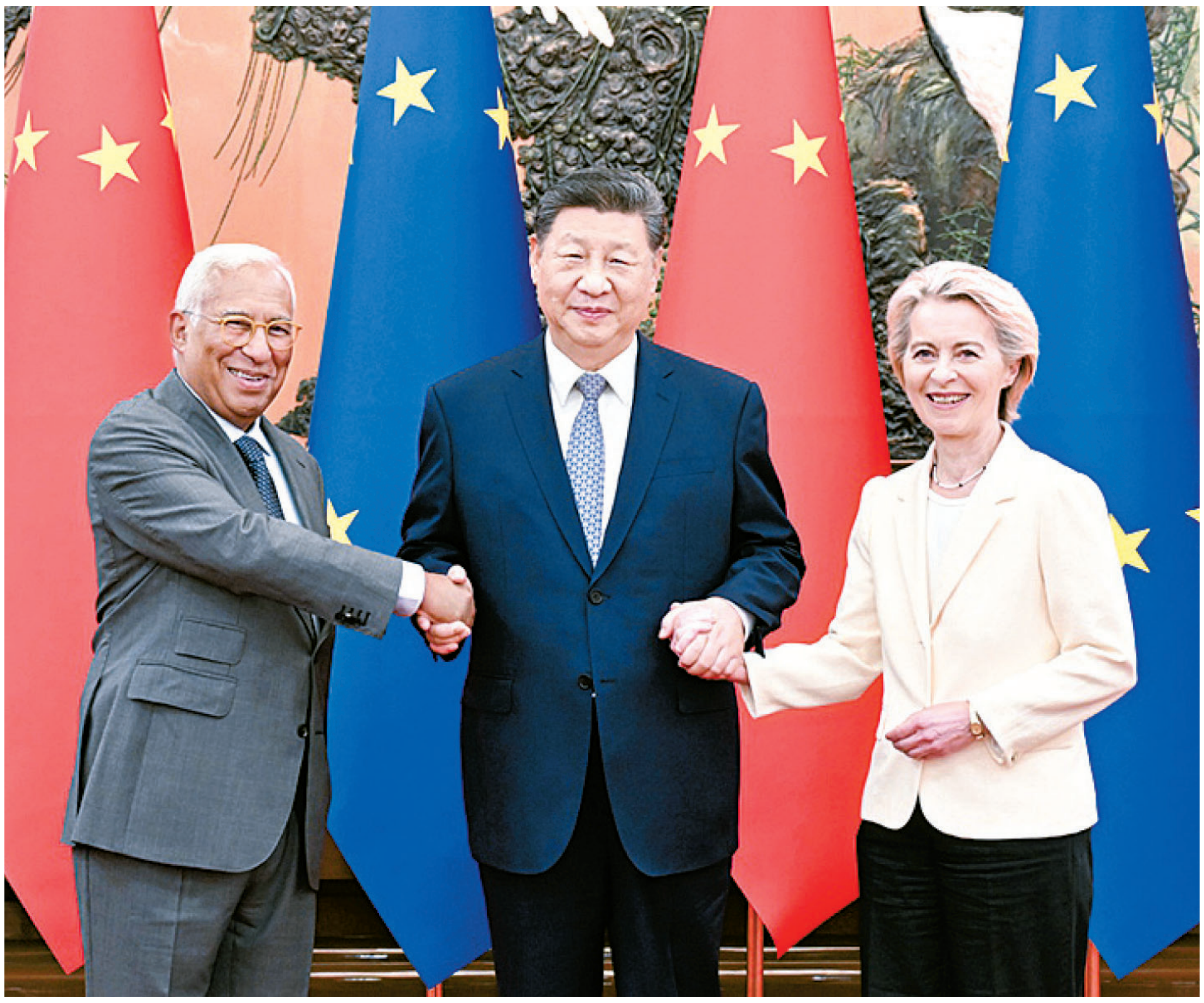
유상철의 차이나 워치 중국 국가주석 실각설의 교훈

시진핑 실각설 힘빠졌지만 …“어떤 권력도 마지막 날 있다”

유 상 철
중국연구소장

시, 퇴진설 비웃듯 9월 전승절 열병식
장유샤 군사위 부주석과 불화는 여전
일각 “시 주석 경호까지 장 손아귀에”

시 끌어내리면 공산당 정당성 흔들
건강 문제 아닌 한 중도하차 쉽잖아
27년 3연임 끝나는 시점 ‘퇴로’ 예상



중국과 EU 수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오른쪽),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오늘 정도면 시진핑 퇴진 소식이 나왔어야 한다. 한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시진핑 실각설에 따르면 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물러날 것이란 소문은 6월 말과 7월 초 사이 절정을 이뤘다. 당시엔 실각 시점까지 거론됐다. 8월 27~30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中全會)에서 시진핑 퇴진이 결정될 것이란 이야기였다. 그러나 시진핑은 건재하다. 4중전회 날짜는 팩트 자체도 틀렸다.

중국 공산당은 7월 말 정치국 회의를 열고 4중전회를 오는 10월 개최하며, 15차 5개년 계획 논의가 주요 안건이라고 밝혔다. 시진핑은 9월 3일엔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戰勝節) 80주년 행사를 열고 이 자리에서 중국군을 검열하는 열병식도 갖는다. 행사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외빈도 참석해 시진핑의 세(勢)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시진핑은 또 10월 말엔 경주 APEC 참석을 위해 11년 만에 한국을 찾을 계획이다.

?이제 실각설은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일까? 시진핑이 7월 들어 내정과 외교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며 실각설은 힘이 많이 빠졌다. 그러자 실각설은 시진핑 체제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이들이 만들어낸 한낱 루머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온다. 실각설은 너무 나간 느낌이 있지만, 시진핑 권력에 이상 징후가 보인 건 부인하기 어렵다. 냉탕과 온탕을 모두 오간 지금은 실각설의 옥(玉)과 석(石)을 가려 교훈을 추출할 때다.

조직부장 꿰찬 스타이펑 인사가 ‘키’

먼저 중국 정가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 실각설의 가장 큰 배경은 시진핑과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간의 불화다. 한데 이를 무시할 근거가 있나? 그렇지 않아 보인다. 2023년 여름부터 이제까지 수십 명의 장군들이 낙마했다. 대개 부패라는 혐의가 씌어 있는데 시진핑의 푸젠성 기반 장군들과 장유샤의 장비개발부 부문 장군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난타전이 벌어져 적군 1000명을 잡았으면 아군 피해는 800명인 격이다.

최근 눈에 띄는 건 또 다른 무력인 공안(公安) 계통의 인사다. 7월 21일 공안부 특수경호국(特勤局) 국장이 왕즈중에서 링즈펑으로 교체됐다. 공안부 특수경호국은 국가부주석 등 최상위 지도자 바로 아래 요인들의 경호를 맡는 부서다. 왕즈중은 시진핑의 측근 왕샤오훙 공안부장과 가까운 사이인데 2년 만에 바뀌었다. 자연히 중요 인사들에 대한 시진핑의 장악력이 약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판 용감한 시민 표창대회에는 무장경찰(武警)의 대리 사령관 차오쥔장이 참석했다. 2022년 같은 행사에 모습을 보였던 사령관 왕춘닝은 시진핑-장유샤 갈등 속 행방을 감춘 지 오래다. 왕춘닝은 시진핑의 군내 측근으로 지난 3월 이후 보이지 않는 허웨이둥 군사위 부주석과 관계가 깊다. 반면 왕춘닝을 대신한 차오쥔장은 장유샤와 오래 같이 근무한 사이로 알려진다.

한편 무경의 또 다른 부사령관 푸원화 역시 선양군구 출신으로 장유샤와의 관계가 깊다. 일각에선 시진핑 경호도 사실상 장유샤의 수중에 놓인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최고 지도부 경호는 중앙경위국이 담당하는데 이는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이 수장으로 있는 중앙판공청 관할이다. 한데 중앙경위국 국장 저우흥쉬는 장유샤가 2021년 추천해 자리에 앉힌 사람이라는 거다.

군부에 이어 공안과 무경이란 또 다른 무력에도 장유샤의 그림자가 짙어진 형국이다. 그렇다고 이게 바로 실각설의 현실화를 뜻하는 건 아니다. 시진핑 퇴진은 그리 쉬이 이뤄지는 게 아닌 것이다. 당내 시진핑 비판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공산당 지도부를 이루는 사람들로 한배를 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의 중국 전문가 프란체스코 시시 박사의 해석이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전체 체제가 황제(영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 황제를 끌어내면 체제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다. 황제 주변 관리들도 함께 권력을 잃는다. 그래서 자아보호의 본능 속에 모두 황제 보위(保皇)에 나서게 된다는 거다.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은 왜 마오가 일으킨 문화대혁명에 넌더리를 내면서도 마오의 공(功)은 7이요 과(過)는 3이라 하며 마오를 감쌌나.

마오에 대한 부정이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흔들기 때문이다. 건강 문제가 아닌 한 시진핑을 임기 중 하차시키는 건 공산당의 계속적인 집권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따라서 시진핑 반대 세력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2027년 가을 3연임이 끝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는 실각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진핑이 갑작스레 물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눈여겨볼 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시진핑의 절대 권력에 의심이 들게 한 지난 몇몇 사건의 추이를 냉정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지난 4월 있었던 조직부장과 통전부장의 자리바꿈 결과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 당시 시진핑 수하인 리간제가 조직부장에서 통전부장으로 갔고, 공산주의청년단(共靑團)과 가까운 스타이펑이 통전부장에서 조직부장이 됐다.

조직부장은 당내 인사를 좌우하는 핵심 자리다. 2027년의 21차 당 대회를 앞두고 주요 보직에 시진핑 사람을 기용할지 아니면 반대로 가 시진핑의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스타이펑의 인재 배치에서 시진핑 치세(治世)의 계속 여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건 7월 초 인민일보의 리커창 전 총리 추모글 게재 사건 후유증이다.

리커창은 생전 때때로 시진핑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시진핑이 중국 경제 비약을 외칠 때 리커창은 한 달 1000위안 수입으로 생활하는 인민이 6억 명이나 된다고 토로해 많은 중국 인민의 공감을 샀다. 그런 리커창의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인민일보는 대대적으로 실었지만, 신화사 등 다른 매체는 따라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 선전 부문에서 미묘하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희망회로’ 대신 사실 기반한 접근 필요

시진핑 권력에 누수가 생긴 신호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각설 사태를 계기로 챙겨야 할 다른 하나는 ‘시진핑 이후’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는 일이다. 국내 일각에선 실각설이 한국에서만 요란했다고 비판한다. 유난스러웠던 건 맞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진핑의 권력 이상설이 세계 곳곳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여파로 최근 시진핑 이후나 후계 문제를 다루는 글이 많아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게 8월 초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시진핑 이후-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현재를 불안케 하는 승계 문제’ 등이다. 타일러 조스트 브라운대 교수와 다니엘 매팅리 예일대 교수가 공동 집필한 이 글은 시진핑이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2032년까지도 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시진핑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낄 경우 대만 통일이라는 군사적 도박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시진핑 이후 중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노선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진핑 3기의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구성을 보면 후계 구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진핑 이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실각설은 신취리히 신문 칼럼니스트 알렉산더 괄라흐의 말처럼 “사람 사는 세상에선 그 어떤 인간의 권력도 모두 마지막이 되는 날이 있다”는 걸 일깨운다. 이젠 시진핑을 이을 후보군과 그들의 노선, 그리고 승계 과정을 차분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진핑 실각설은 앞으로도 수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지도자의 건강 등 모든 걸 꽁꽁 숨기는 권위주의 체제가 야기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가 한동안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거나 또는 행사에서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할 때마다 실각 운운의 말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럴 때 희망회로를 돌린 해석이나 유난함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 입니다〉

시진핑 7월 주요 활동

1일	중앙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 주재
7~8일	산시성 양취안시 시찰
14~15일	중앙도시업무회의 참석해 연설
15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회견 상하이협력기구 외교장관단 회견 앨버니지 호주 총리 회견
23일	당외 인사 좌담회 주재
24일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 및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회견
25일	16명 신임 주중 대사 신임장 제정식 참석
30일	정치국 회의 주재

시진핑 9~11월 주요 일정

9월 3일	베이징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개최
10월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10월 말 ~11월 초	경주 APEC 참석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since 1982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